



**올림픽 입장권 구매 요청** 도의회 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박현창)와 대한건설협회 도지회(회장:오인철)는 11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지회(회장:하용환)를 방문해 올림픽 입장권 구매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왼쪽·위원장 장세국)는 11일 전북 전주 한옥마을 거리를, 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현창)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지회를 각각 방문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경기관람을 요청하는 등 올림픽 홍보활동을 했다.

## 전북에서 경기에서 입장권 구매 홍보

### 도의회, 건설협 도지회와 협력

강원도의회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붐업을 위해 티켓 구매력이 있는 유력 단체와 타 시·도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입장권 판매를 끌어올리기에 나섰다. 도의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대한건설협회 강원도지회와 손잡고 입장권 구매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박현창 동계특위 위원장은 11일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지회장과 함께 경기 수원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지회를 방문, 하용훈 회장에게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입장권 구매 등 협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기획행정위는 12일 지방자치단체개발원 배진환 원장을 비롯한 전국 공무원들에게 올림픽 홍보를 이어간다. 운영위원회와 폐광지역개발촉진특별위원회도 13일부터 제주에서 각각 워크숍을 갖고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올림

픽 홍보활동을 병행한다. 박현창 위원장은 "패럴림픽이나 설상경기 등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으면서 색다른 올림픽 경험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홍보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여진

### 평창 성화, 참전용사 손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화가 12일 충남 보령에서 6·25 참전용사들을 만난다. 11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로봇방송으로 ICT스페셜을 성공적으로 마친 성화는 이날 보령군 상이군경회를 찾아 6·25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 유공자들과 불꽃의 의미를 나눈다. 이곳에서는 다트게임 등 이벤트와 성화봉체험, 올림픽 홍보영상 상영으로 참전용사들과 함께 평화가 깃든 올림픽 정신을 공유할 예정이다. 성화는 13일 세종특별자치시 봉송을 이어간다. 김여진

##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까지 허용

### 청탁금지법 허용 상한액 개정

현금 경조사비 10만→5만원 낮춰  
음식물 상한액은 현행 3만원 유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용의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대신 경조사비는 상한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일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

|                                  | 기 존  | 개정안             | 현행 유지  |
|----------------------------------|------|-----------------|--|
| <b>식사대접</b><br>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 3만원  | ▶ 3만원           | 현행 유지  |
| <b>선 물</b><br>금전, 음식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 5만원  | ▶ 5만원<br>(10만원) |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가능                      |
| <b>경조사비</b><br>각종 부조금 및 화환, 조화 등 | 10만원 | ▶ 5만원<br>(10만원) | 상한선은 5만원이지만,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 현금 5만원을 주면서 5만원 화환을 함께 주는 것도 가능 |

자료/국민권익위원회

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물 상한액은 현행대로 3만원으로 유지됐다. 하지만 선물비용은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반

면 경조사비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결혼식·장례식)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된다. 김기섭

▶ 관련기사 6면

# 건설수주액 19% 감소 강원건설 경기 하향

수주액 8369억 줄어 3조5314억  
공공공사 수주액도 15.3% 감소

올해를 기점으로 강원건설경기가 쇠퇴기에 들어설 전망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도내 종합건설, 전문건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도 전체 건설수주액은 3조5314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4조3683억여원보다 19% (8369억원) 감소했다. 지난 10월 도 전체 건설수주액이 1조원 이상 줄면서 도내 건설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한달만인 11월 도내 종합건설업체들의 공공공사 수주액도 감소, 올해 강원건설 실적 하락이 예고되고 있다.

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종합건설사들의 공공기관 건설수주액은 1529억1270만여원으로 전년동월 1806억3652만여원보다 15.3% (277억2382만여원) 줄었다.

때문에 올해 10월까지 7.3%던 도 종합건설업계의 전년동기대비 공공기관 건설수주액 증가율이 올해 1월~11월 기준 4.3%대로 하락, 도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신관호

## 사설

### SOC예산 확보 실패 공방 치열하다

-정치력 열세 핑계 삼아 미리 포기한 것 아닌지 반성해야

SOC 예산을 둘러싼 강원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책임공방이 접입가경이다. 한나라당 강원도당은 엇그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집권출발부터 사회간접자본의 감축기조를 나타냈고 강원도 SOC 예산만 직격탄을 맞았다"며 "최문순 도지사야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최지사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고 공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원도 미래발전전략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색하다.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했거나 강원도가 요청한 예산 대부분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배정된 예산도 나열하기 부끄러운 정도로 왜소하다.

강원도가 확보한 2018년 예산 5조3025억원 가운데 SOC 예산은 원주-제천 철도 (1500억원), 포항-삼척 철도 (1246억원), 춘천-속초 철도 (100억원) 등 총 9501억원이다. 그러나 강릉-제천 철도 등 신규 사업이 모두 제외됐고, 도가 요청한 강릉-제천철도, 제천-삼척고속도로, 춘천~철원고속도로 사업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 최 지사와 도 국회의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중앙부처와 국회상임위를 들러거렸지만 손에 쥔 것은 없다. 최 도정의 전략 실패이자 도

국회의원들의 역량 부족이다. 남탓이 아니라 도 정치권의 공동 책임인 것이다.

내년 SOC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보다 1조3000억원이나 늘어났다. 예년보다 큰 폭의 증가세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실제 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 지역구 민원을 챙기려는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가 밀실에서 야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강원도가 챙긴 것은 전무하다. 호남정치권은 정부안에 존재하지도 않던 예산을 챙길 정도로 치밀했다. 이들이 추가로 챙긴 예산은 광주-강진고속도로 1000억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비용 510억원 등 3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 경북의 SOC예산도 당초 정부안 3조2445억원보다 3300억원 증가했다. 도 정치권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강원도와 도 정치권은 이번 예산 확보 실패를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 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최문순 도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겠으나 그렇다고 한국당 의원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영호남과 충청권의원들이 쪽지를 돌리고, 밀실에서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일 때 강원국회의원들은 뭘 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정치력열세를 핑계삼아 미리 포기한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 강원 양양에 2020년까지 '복합리조트' 만든다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정리에 조성한 지정관광지에 최소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복합리조트가 들어선다.

양양 LF 스퀘어 물 조성 사업시행자인 LF네트웍스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총 8만2000㎡ 규모에 호텔, 상가, 휴양시설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리조트를 건설한다.

지난 7월부터 외국 여객선사의 제안을 거쳐 일본 JMA사의 설계안을 최종선정했으며, 내년 초까지 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1000억원을 투자해 내년 하반기에 착공, 2020년 개장이 목표이다.

관광·부티크 호텔 등 120실의 숙박시설

LF 네트웍스, 마스터플랜 확정  
1000억 투입, 내년 하반기 착공  
호텔·상가·휴양시설 등 갖춰

과 패션 및 F&B 관련 150개 매장이 들어설 종합쇼핑몰 노천스파, 실내스포츠 시설 등이 계획돼 있다.

숙박지구(호텔) 2만3000㎡ 상설지구(쇼핑, 아웃렛) 3만5000㎡, 기타 시설지구(휴양 등) 2만4000㎡ 규모이다. 특히 숙박시설은 옥상을 연결해 조성하는 옥상 거든 산책로와 상업시설지구 내 운영하는 트램폴린 로 다른 리조트와 차별화할 계획이다.

LF 스퀘어 물 특징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강원도 양양에서만 체험 가능한 리조트'를 내세웠다.

바다, 산, 오솔길 풍경을 바로 연결하고, 860m 긴 해변 공간을 활용해 카누, 클라이밍, 아이스링크 등 다양한 액티비티 시설을 배치한다.

도는 양양 국제공항 및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와의 연계 시너지 효과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도 관광 경쟁력 증폭했던 소

평관광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10월까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LF네트웍스 사업부지 확충 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